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과 경공업을 추켜세우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리 혁

이 땅우에 경제강국을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잘살게 하려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이였으며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농업과 경공업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으로 규정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과 경공업전선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들이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의 성과는 인민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농업과 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향상될수 있고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할수 있다.

무엇보다먼저 농업을 추켜세워야 한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첫째도 둘째도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는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된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선차적인 문제는 먹는 문제, 식량문제이다.

먹는 문제, 식량문제는 기본적으로 농업생산에 의하여 해결된다.

농사를 잘 지어야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하여서는 우선 농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여야 한다.

농촌에 대한 국가적투자는 본질에 있어서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사업을 의미한다.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사업은 농업에 대한 공업의 물질기술적방조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국가적보장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농사를 잘 지을수 없으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할수 없다.

오늘의 현실은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워도 양수동력용전력과 화학비료, 농업용설비와 자재를 비롯하여 국가에서 농촌경영에 대줄것은 어김없이 대주고 농촌경영에 복무하는 공업부문들을 빨리 추켜세우고 더욱 발전시켜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한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이다.

농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강화하고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농촌경영부문에 마련된 물질기술적토대가 그 위력을 다 발휘할수 있으며 알곡생산을 늘이는데 요구되는 영농물자, 기술수단, 전력문제를 얼마든지 풀고 영농작업도 제철에 해제껴 알곡생산에서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한다.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현대과학기술이 달성한 성과를 농업생산에 받아들여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고 언제나 높고 안전한 소출을 거둘수 있게 한다.

우리 식의 과학농법이며 집약농법인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한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지대적특성에 맞게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선진적인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알뜰하고 깐지게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산이 많기때문에 기후의 변화가 심하며 지방마다, 골짜기마다 기후조건이 다르고 토양조건이 다르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작물과 품종배치를 하거나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용한다면 농업을 발전시킬수 없다.

벼가 잘되는 곳에서는 벼를 심고 강냉이가 잘되는 곳에서는 강냉이를 심어야 하며 벼와 강냉이를 심는 경우에도 매 지방, 매 농장에서 지대적특성과 토양조건에 가장 알맞는 새 품종의 다수확우량종자를 심고 재배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여러가지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도입하여 종자와 로력, 영농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알곡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는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연구도입하여야 한다.

모든 영농작업을 제철에 생물학적리치에 맞게 하며 식물성장의 이상적조건과 환경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농업생산의 집약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부침땅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알곡생산을 늘이는 큰 예비이다. 두벌농사를 하면 부침땅의 리용률을 배로 높여 같은 면적에서 알곡을 비롯한 여러가지 농작물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할수 있다. 최근년간 여러 지방에서 두벌농사를 하여 얻은 경험은 종자혁명을 하고 영농작업을 기계화하면 어디에서나 다 두벌농사를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두벌농사는 지대적특성에 따라 알곡 대 알곡, 알곡 대 감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알곡 대 남새, 알곡 대 공예작물과 같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며 논에서도 하고 밭에서도 하며 알심있게 실리가 나게 하여야 한다.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자면 두벌농사적지를 바로 정하고 그 면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지력을 높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두벌농사에 맞는 여러가지 다수확품종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우량종자를 육종해내야 하며 영농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실현하여 로력문제를 풀어야 한다.

다음으로 경공업을 추켜세워야 한다.

경공업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공업은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생산하는 공업부문이다. 경공업을 발전시켜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들이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릴수 있다.

나라의 경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오늘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기본고리로 된다.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경공업부문의 특성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공업은 생산순환주기가 짧고 소비재생산부문인것으로 하여 많은 원료, 자재가 요구된다. 경공업부문에 대량적으로, 련속적으로 요구되는 원료, 자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으면 생산순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수 없고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다.

경공업의 원료, 자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면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여야 경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할수 있으며 인민소비품을 안전하게 생산보장할수 있다.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의 원료, 자재들을 다른 나라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발전시킬수는 없다.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서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화학공업은 화학적방법으로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원료, 자재를 생산함으로써 자연원료의 제한성을 극복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며 원가를 낮출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경공업공장들에 원료, 자재를 넉넉히 대주자면 화학공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경공업의 원료, 자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면 경공업부문에서 자체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모든 공장들은 자체의 힘으로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재배원료기지와 자연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잘 관리하여 재배원료와 자연원료를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에 있는 공장들은 자기 지방에서 재배원료기지와 자연원료기지를 꾸릴만 한 곳을 찾아내어 원료기지를 조성하며 도시에 있는 공장들은 멀지 않은 지방에 나가 자기 공장의 실정에 맞는 원료기지로 리용할수 있는 자리를 찾아 자체의 원료기지를 꾸려야 한다.

내부예비는 경공업의 원료, 자재문제해결을 위한 보충적원천이다. 경공업공장들에는 이러저러한 형태로 존재하고있는 원료, 자재의 예비가 적지 않다. 경공업공장들의 생산과정에서 절약한 원료, 자재, 기본생산공정에서 나오는 폐설물, 부산물들이 그러한 예비의 중요한 형태이다. 경공업공장들이 원료, 자재를 아껴쓰면 적은 원료, 자재를 가지고도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으며 부산물, 폐설물을 다시 가공하여 리용하면 부족되는 원료, 자재를 보충할수 있다.

경공업공장들에서는 제품단위당 원자재소비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낮추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원료, 자재의 수송과 창고관리를 잘하여 원료, 자재의 낭비와 류실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기본생산공정에서 나오는 폐설물, 부산물을 버리지 말고 회수하여 리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 인민들이 남부러운것없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자면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는것과 함께 질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정신과 강한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제품의 규격화, 표준화를 철저히 실현하고 소비품생산에서 거쳐야 할 공정들을 어김없이 다 거치게 하는 한편 기술준비를 확고히 앞세우고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키며 높은 가공정밀도와 재질의 순도를 정확히 보장하는 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지금 있는 경공업공장들을 기술적으로 개건하며 최신과학기술로 장비된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여 경공업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함으로써 인민소비품의 량과 품종에 대한 인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것과 함께 그 질을 훨씬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과 경공업을 추켜세움으로써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